

“안보장사...그 버릇 아직도 못 버리고”

■ 김용갑 의원 ‘광주는 해방구’ 발언 파문

참여정부 친북좌파 몰며 이념갈등 부추겨 與 “광주 모욕” 사과 요구...설전끝 국감 파행

“지난 6월 15일 (6.15 남북평화)대축전 만 봐도 2박 3일만 행사가 벌어진 광주는 완전히 (친북좌파의) 해방구였다.”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의 이같은 ‘광주 해방구’ 발언으로 26일 열린 국회 통일통외부의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여야 간에 가시 돌진 설전이 오가는 등 파행을 면치 못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김정일 추종 사상과 반미의식을 퍼뜨리는 일에도 이 정권이 돕고 있다”며 ‘광주 해방구’를 언급한데 이어, “주체사상을 선호하는 홍보물이 돌아다니고 학교 교육현장에까지 사상주입이 공공연히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까지 직접 거론하며 참여정부를 친북좌파 세력으로 몰아붙인 것도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지만 여당 의원들은 ‘광주 해방구’ 발언을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광주가 지역구인 열린우리당 정동채 의원은 “광주가 (6.15 행사기간에) 공산치하에 있었던 말이나”며 “이는 광주를 모욕하는 행위이고 광주 민주화를 위해 싸운 영정들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같은 당 최재천(서울 성동갑) 의원이 “별칭인 대낮에 광주가 해방구가 됐느냐”며 “이런 발언이 국정감사에서 이뤄지는 것은 대단한 반역이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여당 의원들은 물론, 광주 현지의 반발을

예상했던지 김 의원은 ‘광주 해방구’ 발언에 대해 “광주시민이나 광주 자체를 말한 것이 아니라 광주에서 열린 행사를 그런 식으로 끌고 간 사람들을 지칭한 것”이라며 한발 뒤로 빼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최재천 의원이 “대단히 위험한 사고방식”이라고 거듭 문제를 제기하며 사과를 요구, 결국 국감은 시작 40여분 만인 낮 12시12분께 중단됐다.

오후 2시 30분부터 국감은 재개됐다. 이번에는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이 ‘5.18 민주항쟁’을 거론하며 가세했다. 그는 “5.18 당시 저는 광주지역의 고등학교 모병생이었다. 과거 군사 독재정권 시절 친북좌파 등 지극히못한 용공음해에 분노를 갖고 살아왔다”며 김 의원의 안기부 경력을 거론했다.

같은 당 최재천 의원도 10.26에 이어 12.12, 5.18에 이르는 현정중단 사태까지 거론하며 “전두환, 노태우 정권 말의 하수인들이 안보장사를 위해 (5.18 항쟁을) 좌익·친북좌파로 밀어붙이는 버릇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같은 설전으로 오후 국감은 시작 약 1시간 만에 결국 중단됐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김용갑의원 망언 일지

▲2000년 11월 14일=“민주당은 노동당의 2중대란 소리까지 나온다”

▲2004년 8월=“(한나라당 5·18 지지 참배에 대해) 당 전체가 참배하는 것은 6·25 참전용사 등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2006년 8월 14일=“한반도에 대한 한국 대통령은 없고, 북한 주석만 두 사람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2006년 8월 24일=“이종석 장관 얘기를 하면서 세작(細作·간첩을 뜻함) 얘기가 화제가 되고 있다”



26일 오전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광주 해방구 발언을 한 김용갑 의원이 자신의 발언으로 국감이 정회되자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10·25 재보선서 표출된 전남 민심

10·25 전남지역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국회의원(해남·진도) 선거에서는 열린우리당에 이겼으나 기초단체장(화순·신안) 2곳을 모두 무소속에게 내줘 충격과가 적지 않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열린우리당과 ‘호남 맹주’ 경쟁에서 민주당의 우위를 확인했지만 기초단체장 선거의 전례는 당 지도부에 대한 ‘공천 책임론’을 불러일으킬 개연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무소속 단체장 후보들은 마땅히 지지할 정당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는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을 흡수, 5·31 지방선거에 이어 강세를 이어갔다.

지역일꾼 政黨 무용론

◇민중, 상처받은 승리=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일단 ‘승리’라고 규정했으나 표정이 밝지않은 않다. 한화갑 대표는 25일 재·보선 결과에 대해 “민주당이 앞으로 정계개편의 중심에 서서 과거 민주당으로 거듭 태어나라는 유권자들의 지상명령”이라며 “그에 따라 정치발전에 앞장서 새 틀을 짜는데 소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화순군수와 신안군수 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해 승리함으로써 당 지도부는 ‘공천 실패’에 따른 책임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게 됐다.

이들 지역은 더욱이 한화갑 대표와 원칙 없는 전략공천과 이에 따른 잡음은 이번 선거에서도 어김없이 재연됐다. 신안군수의 경우 공직특위가 내정한 후보의 ‘공무원 신분’을 문제삼아 철 회하고 뇌물 수수로 구속된 전 군수의 아들들을 공천해 탈락자들의 탈당 사태를 불러왔고 이들이 무소속 연대를 기치로 민주당 후보에 맞서는 발미를 제공했다.

화순군수 공천 후보에 대해서도 상당수 지역당원들은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발, 무소속으로 나선 탈락 후보 진영에 합류했다.

여기에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인준과 북한 핵실험 이후 햇볕정책을 둘러싼 민주당의 오락가락 행보도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무소속 강세=화순군수와 신안군수에서 무소속 후보가 모두 당선됨으로써 전남지역 22곳의 기초단체장 소속 정당은 민주당 9곳(목포·여수·순천·광안·강진·해남·담양·보성·고흥), 무소속 8곳(나주·함평·장성·곡성·장흥·영광·화순·신안), 열린우리당 5곳(무안·완도·진도·구례·영암)으로 재편됐다.

5·31 이전 5곳에 불과했던 무소속은 지방선거를 통해 2곳을 늘린데 이어 이번 재보선에서 한 석을 추가하는 등 강세를 이어갔다.

무소속 후보들이 행정 경험과 CEO 경력 등을 바탕으로 인물론을 내세우며 지지 이겨야 본전”이라며 지원유세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지난 지방선거에 이어 신안을 무소속에게 내주고 말았다.

이질게 갈려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의 확고한 텃밭으로 여겨졌던 지역에서 무소속 기초단체장들이 연거푸 당선된 것은 향후 정계 개편의 폭이 현재 거론되는 것보다 훨씬 넓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해석도 나온다.

◇넓어진 표심 스펙트럼=당 지도부와 대선주자들의 잇따른 지원 유세로 전남에서 두 자릿수 득표를 목표로 했던 당수 지역당원들은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발, 무소속으로 나선 탈락 후보 진영에 합류했다.

여기에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인준과 북한 핵실험 이후 햇볕정책을 둘러싼 민주당의 오락가락 행보도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무소속 강세=화순군수와 신안군수에서 무소속 후보가 모두 당선됨으로써

전남지역 22곳의 기초단체장 소속 정당은 민주당 9곳(목포·여수·순천·광안·강진·해남·담양·보성·고흥), 무소속 8곳(나주·함평·장성·곡성·장흥·영광·화순·신안), 열린우리당 5곳(무안·완도·진도·구례·영암)으로 재편됐다.

5·31 이전 5곳에 불과했던 무소속은 지방선거를 통해 2곳을 늘린데 이어 이번 재보선에서 한 석을 추가하는 등 강세를 이어갔다.

무소속 후보들이 행정 경험과 CEO 경력 등을 바탕으로 인물론을 내세우며 지지 이겨야 본전”이라며 지원유세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지난 지방선거에 이어 신안을 무소속에게 내주고 말았다.

이질게 갈려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의 확고한 텃밭으로 여겨졌던 지역에서 무소속 기초단체장들이 연거푸 당선된 것은 향후 정계 개편의 폭이 현재 거론되는 것보다 훨씬 넓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해석도 나온다.

◇넓어진 표심 스펙트럼=당 지도부와 대선주자들의 잇따른 지원 유세로 전남에서 두 자릿수 득표를 목표로 했던 당수 지역당원들은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발, 무소속으로 나선 탈락 후보 진영에 합류했다.

여기에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인준과 북한 핵실험 이후 햇볕정책을 둘러싼 민주당의 오락가락 행보도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규하 前대통령 ‘10·26’에 영면

전·현 대통령등 대거 참석 국민장...대전 현충원 안장



고 최규하 전 대통령의 운구행렬이 26일 경북공에서 열린 국민장 영결식을 마친 뒤 경북 동문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고 최규하 전 대통령의 국민장이 엄수된 26일 영결식장인 경북공 앞과 운구행렬이 이어진 서울 광화문 일대에는 추도 물결이 넘쳤다. 특히 최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고인을 격랑의 소용돌이로 몰고 갔던 1979년 10.26사태가 발생한 지 꼭 27년이 되는 바로 그 날에 열려 역사의 아이러니를 실감케 했다.

발인제는 이날 오전 민소가 마련됐던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유족과 장의위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0여분간 열렸다.

운구 행렬은 오전 9시30분경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출발해 한남동 사거리와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앞을 지나 경북공에 마련된 영결식장으로 이어졌다.

운구 행렬은 오전 10시경 노무현 대통령과 전두환·김영삼·김대중 전대통령 등 정관계 주요인사 및 외교사절 등 추모객들이 모인 영결식장으로 들어섰다. 영

결식은 최 전 대통령 내외의 유해를 실은 운구차 2대가 경북공으로 들어서면서 시작됐으며 식순에 따라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고인의 약력을 보고했다.

최 전 대통령의 생전모습을 담은 동영상 방영되는 동안 추모객들 사이에서는 흐느낌이 새나오기도 했다. 상주와 직계가족에 이어 노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등의 순으로 헌화식이 진행됐다.

최 전 대통령 내외의 유해를 실은 운구차는 경북공 영결식장을 뒤로 하면서 대형 태극기와 영정을 앞세우고 추모객들과 이승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서울시청 앞까지 느린 속도로 움직였다.

오후 2시경 운구행렬은 국립 대전현충원에 도착했으며 최 전 대통령 내외의 유해는 국가원수묘역에 나란히 안장됐다. 안장식은 추모객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교의식과 헌화 및 분향, 하관, 히토 등 순서로 진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초기감기 퇴장! 콘택골드!

초기 감기약 - 콘택골드

초기 감기 예방, 초기 감기 치료, 초기 감기 완화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